

조립형 공예 키트의 치유적 활용과 공공 서비스 모델 연구

소외계층의 정서 회복과 사회적 포용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Therapeutic and Public Service Model of Assembly-Based Craft Kits

focusing on Emotional Recovery and Social Inclusion of Marginalized Communities

주 저 자 : 조완희 (Cho, Wan Hee)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공예전공 조교수
wanheecho@dankook.ac.kr

<https://doi.org/10.46248/kidrs.2026.2.916>

접수일 2026. 05. 03. / 심사완료일 2026. 05. 06. / 게재확정일 2026. 05. 08. / 게재일 2026. 06. 30.

본 논문은 2024학년도 2학기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에 의하여 연구 되었습니다.

Abstract

This study proposes the assembly-type craft kit as a design medium that fosters emotional recovery and social inclusion among underserved populations, addressing the loss of tactile experience, digital fatigue, and social isolation intensified by hyper-connected environments. Drawing on contemporary craft markets, the therapeutic mechanisms of handcraft activity, and discourse on participatory art, the study analyzes three design cases to derive four guiding principles: accessibility, versatility, scalable difficulty, and sense of completion. Building on these principles, it demonstrates that a single system of standardized modular components can continuously mediate three distinct layers of value: haptic stimulation and emotional stability at the individual level, collaborative assembly and the restoration of social bonds at the relational level, and participatory exhibition and service expansion at the public level. A phased operational model of information, consultation, and active participation is proposed to embed the kit within municipal welfare and cultural infrastructures. By extending the therapeutic capacity of craft beyond clinical settings and integrating emotional, relational, and cultural functions into a single material system, the assembly-type craft kit emerges as a practical instrument for ensuring equitable cultural participation among populations situated in the blind spots of existing welfare delivery.

Keyword

Assembly-type Craft Kit(조립형 공예 키트), Therapeutic Design(치유적 디자인), Public Service Design(공공 서비스 디자인)

요약

본 연구는 초연결 사회에서 심화된 촉각적 경험의 상실, 디지털 피로, 사회적 고립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립형 공예 키트를 소외계층의 정서 회복과 사회적 포용을 매개하는 디자인 산출물로 정위하고 그 공공 서비스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동시대 공예 DIY 키트 시장 동향, 수공예 활동의 치유적 기제, 참여적 예술의 사회적 포용 논의를 검토하고, 세 가지 디자인 사례 분석을 통해 접근성, 활용성, 난이도 가변성, 완성 만족도의 네 가지 설계 원칙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조립형 공예 키트가 개인 차원의 햅틱 자극과 정서적 안정, 관계 차원의 공동 조립과 사회적 유대 회복, 공공 차원의 참여적 전시와 공공 서비스 확장을 동일한 부품 체계 안에서 통합적으로 매개할 수 있음을 규명하고, 정보 제공, 협의, 적극적 참여로 이어지는 단계적 운영 모델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일상 환경에 머물던 공예의 치유적 매체성을 일상으로 이행시키고, 분절되어 운영되던 정서, 관계, 문화예술 향유 영역을 단일 도구로 통합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게 균등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는 실천적 도구로 기능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목차

1.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2. 연구 방법 및 범위

2. 이론적 배경

- 2-1. 동시대 공예 산업의 트렌드와 DIY 키트 시장 현황
- 2-2. 수공예 활동의 치유적 기제와 선행연구 고찰
- 2-3. 참여적 예술과 사회적 포용에 관한 논의

3. 조립형 공예 키트 설계

- 3-1. 조립형 공예 키트의 디자인 사례
- 3-2. 지속 가능한 조립형 공예 키트 개발을 위한 설계 원칙

4. 키트의 다층적 가치와 공공 서비스 모델

- 4-1. 개인 차원: 행복 자극과 정서적 안정

- 4-2. 관계 차원: 공동 조립을 통한 사회적 유대 회복
- 4-3. 공공 차원: 참여적 전시와 공공 서비스 확장

5.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지능정보 기술의 고도화와 4차 산업 패러다임의 급격한 확산은 우리 사회를 고도의 초연결(Hyper-connectivity) 환경으로 재편하고 있다. 이 같은 매체 환경의 변화는 일상생활의 시공간적 제약을 허물고 물리적 효용성을 극대화한 반면, 역설적으로 대면 상호작용의 빈도를 현저히 낮추고 파편화된 개인주의를 촉진하였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2024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22.9%가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며, 청소년의 경우 그 비율은 42.6%에 이른다.¹⁾ 이와 동시에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2023)는 19세 이상 국민의 22.8%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여 있음을 보고하였다.²⁾ 보건복지부의 2024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에서도 고독사 사망자 수가 3,924명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하여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으며,³⁾ 전문가들은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른 대면 관계의 질 악화, 지역 공동체 의식의 쇠퇴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 편향적 사회 구조는 다수의 현대인에게 축적적 경험의 상실, 심각한 디지털 피로감, 그리고 심리적 고립이라는 복합적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리적,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오프라인 문화예술 인프라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에

게, 이 같은 환경 변화는 정서적 빈곤과 상대적 박탈감을 가속하는 치명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문화로 치유 지원사업'을 통해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적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으나,⁴⁾ 물리적 소재를 활용한 촉각 중심의 실천적 공예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비대면 중심의 라이프스타일이 고착화되는 현시점에서, 인간 본연의 신체적 감각을 회복하고 아날로그적 물성과 직접 교감할 수 있는 실천적 문화예술 대안이 필요하다. 수공예 기반의 창작 활동은 물리적 재료의 질감을 느끼고 형태를 구축해 나가는 노작(勞作)의 가치를 지니며, 관련 선행연구들은 공예 기반 중재가 참여자의 우울, 불안, 스트레스를 유의미하게 감소시키고,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⁵⁾ 또한 미국정신의학회(APA)에 따르면, 미술치료는 정서적 갈등과 고통을 줄이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며, 자존감과 정서적 회복탄력성 및 사회적 기술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난감 조립과 유사한 직관적 방식으로 설계된 '조립형 공예 키트'는 전문적 기술이나 복잡한 장비 없이도 누구나 손끝의 햅틱(Haptic) 자극을 통해 직접적인 감각적 몰입을 경험하고, 유형(有形)의 완성작을 만들어냄으로써 가시적인 성취감을 획득할 수 있는 대안적 매체로 주목

1)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4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4, p.20

2) 국가데이터처, 2023년 사회조사 결과 보도자료, 통계청, 2023, p.21

3) 보건복지부,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2024년 고독사 전년 대비 증가,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위험군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 예정, 2024, p.2

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로 치유 지원사업, (2025.10.28.)
www.arte.or.kr/business/citizenSociety/healing/intro/index.do

5) E. B. Bukhave, J. Creek, A. K. Linstad, T. F. Frandsen, 'The effects of crafts-based interventions on mental health and well-being: A systematic review', Wiley, Australian Occupational Therapy Journal, 2025. 02. Vol.72, No.1, p.16

할 만하다. 나아가 이러한 키트의 가치는 개인 차원의 정서적 치유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참여자가 함께 키트를 조립하여 하나의 아트워크를 공동 제작하는 과정은 자연스러운 대면 소통의 시발점이 되며, 완성된 작품을 지역 갤러리나 공공문화시설에 전시하는 활동으로 확장될 때 소외계층의 사회적 가시성을 확보하고 고립을 완화하는 공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참여적 예술이 사회적 역량 강화, 공동체 결속력 증진, 공공공간의 재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선행연구의 논의와도 맥을 같이한다.⁶⁾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고도화된 기술 중심 사회 속에서 대중의 보편적인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고, 소외계층의 정서적 회복탄력성을 다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립형 공예 키트'를 기획 및 설계하여, 이를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공공 복지 서비스 모델로 제안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층위에서 해당 키트의 가치를 규명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 차원에서 손끝의 탭틱 자극과 반복적 조립 행위를 통한 정서적 안정 및 유형의 완성작이 부여하는 자기 효능감을 탐색한다. 둘째, 관계 차원에서 공동 조립 활동이 대면 소통의 매개로 기능하여 사회적 유대를 회복하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셋째, 공공 차원에서 완성된 아트워크의 지역 전시를 통해 소외계층의 사회적 존재감을 가시화하고, 공동체 수준의 고립 완화에 기여하는 운영 체계를 제안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초연결 시대에 결핍된 하이터치(High-Touch)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치유적 매체로서의 '조립형 공예 키트' 디자인 개발과 그 공공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범위를 한정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는 체험 키트는 사용자의 손끝 감각과 물리적 결합 행위에 핵심적 비중을 두되, 조립 가이드나 프로그램 안내 등 보조적 수단으로서의 디지털 매체 활용 가능성은 열어 둬으로써 현장 적용의 실효성과 아날로그 체험의 본질 사이에서 균형을 도모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해 동시대 공예 산업의 트렌드와 기존 시장에 출시된 DIY 키트(Kit) 관련 사례를 고찰하고, 치유적, 공공적 가치를 담은 공

예 매체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둘째, 대상자의 신체적 조작 안전성과 대량 배포를 위한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최적의 공예 매체를 선정하고, 초심자도 무리 없이 독립적으로 조형물을 완성할 수 있는 세부 부품의 모듈화(Modularization) 설계 및 키트 디자인 프로세스를 도출한다. 셋째, 도출된 결과물이 일회성 체험에 그치지 않도록 기초자치단체 및 공공 예술 기관과의 연계를 전제로 한 시스템적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는 소외계층에게 해당 키트를 효과적으로 배포 및 운용하고, 공동 제작된 아트워크를 지역 공공문화시설에서 전시 및 공유하는 일련의 순환적 프로그램 체계를 제안한다.

이상의 연구 방법을 토대로, 본 연구는 소외계층의 정서 지원에 적합한 조립형 공예 키트의 설계 요건을 도출하고, 해당 키트의 조립 체험이 참여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심리적, 사회적 효과를 규명하며, 나아가 키트 기반 문화예술 활동을 공공 서비스로 확장하기 위한 운영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참여자 중심의 수공예 디자인 산출물이 동시대 문화예술의 대안적 소통 창구이자 치유의 매개체로 기능할 수 있음을 규명하고, 순수 공예 영역이 지닌 자생적 발전 가능성을 공공 서비스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동시대 공예 산업의 트렌드와 DIY 키트 시장 현황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확산은 역설적으로 아날로그적 물성에 대한 대중의 갈망을 촉발하였다. 미국 상공 회의소가 발행한 CO- 비즈니스 매거진이 인용한 민텔(Mintel)의 『US Arts and Crafts Consumer Report 2025』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의 71%가 스스로를 '크래프터(Crafter)'로 정체화하여 약 178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성인의 약 절반이 지난 1년간 스트레스를 경험하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여가 활동으로 공예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⁷⁾ 세계 공예 키트 및 프로젝트 시장은 2026년 약 43.8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7.4%의 성장률(CAGR)로

6) Z. Ke, 'Values and challenges of participatory art in urban and community development: a 10-year systematic review', *Frontiers Media, Frontiers in Sociology*, 2025. 09. Vol.10, p.6

7) D. Purcell, *Stress-Reducing Wellness Trends Fuel Growth in the Crafts Market*, (2026.01.20.) www.uschamber.com/co/good-company/launch-pad/stress-fuels-crafts-market, U.S. Chamber of Commerce

2035년까지 약 83.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그중 DIY 공예 키트가 제품 유형별 시장 점유율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⁸⁾ 이는 전문 공방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일상의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창작 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소비 패턴의 변화를 반영한다.

국내 공예 산업 역시 유사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공예트렌드페어>는 2025년 20주년을 맞아 코엑스에서 개최되었으며, '손끝의 미학'을 주제로 신진 공예가, 공방, 갤러리 등 총 311개 주체가 참여하였다.⁹⁾ 2024년 개최 회차에서는 행사의 현장 매출은 최근 3년간 16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방문객 수 역시 약 54,000명에서 78,000명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¹⁰⁾ 이러한 추이는 공예가 단순한 전통 기술의 보존을 넘어 동시대 문화 소비의 핵심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기존 시장에 유통되는 대다수의 DIY 키트는 개인의 취미 충족이나 인테리어 소품 제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정서적 치유나 사회적 포용을 명시적 목표로 설정한 사례는 드문 실정이다. 또한 시장 성장 전망에서 '전통문화 공예 키트(Heritage Cultural Craft Kits)'가 향후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점은, 단순한 오락적 소비를 넘어 문화적 가치와 정체성이 결합된 공예 키트에 대한 잠재 수요가 존재함을 암시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장적 공백에 주목하여, 치유와 공공적 가치를 핵심 설계 원리로 삼는 조립형 공예 키트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2-2. 수공예 활동의 치유적 기제와 선행연구 고찰

수공예 활동이 참여자의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논의는 미술치료 분야를 중심으로 오랜 기간 축적되어 왔다. 제1,2차 세계대전 당시 귀환 군인

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신체적 상해를 완화하기 위해 바구니 세공, 편물 등의 공예가 전환치료(Diversional Therapy)로 활용된 사례는, 손을 사용하는 행위가 심신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임상적 직관이 일찍부터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이후 공예 기반 중재는 직업치료(Occupational Therapy), 정신건강 서비스, 노인, 치매 돌봄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었으며, 그 효과를 검증하는 실증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왔다.

최근의 메타적 검토는 이러한 효과의 일관성을 뒷받침한다. 정신건강 문제를 지닌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된 19건의 공예 기반 중재 연구를 분석한 한 체계적 문헌 고찰에서는, 도예, 자수, 편물, 종이 공예, 목공 등 매체의 차이와 무관하게 19건 전체에서 우울, 불안, 스트레스의 단기적 감소 및 기분, 삶의 만족도, 자기 효능감, 사회적 기능의 향상이 일관되게 보고되었다.¹¹⁾ 이는 공예 활동의 치유적 효과가 특정 매체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수공예 행위 자체에 내재한 공통의 기제에서 비롯됨을 시사한다.

효과의 강도와 적용 범위는 개별 임상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주요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6주간의 점토 미술치료를 적용한 무작위 대조 실험에서는 우울 증상과 전반적 건강 상태 모두에서 큰 효과 크기(Large Effect Size)가 보고되었으며,¹²⁾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도예 워크숍에서는 자존감과 기분 상태의 유의미한 향상이 관찰되었다.¹³⁾ 정신건강 및 중독 회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자신감, 사회성, 안녕감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확인되어($p<0.001$),¹⁴⁾ 공예 기반 중재가 임상적 중증도가 다

11) E. B. Bukhave 외, Op. cit. 2025, p.12

12) J. K. M. Nan, R. T. H. Ho, 'Effects of clay art therapy on adults outpatients with major depressive disorder: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Elsevier,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Vol.217, 2017, p.241

13) E. Pérez-Sáez, E. M. Cabrero-Montes, M. Llorente-Cano, E. González-Ingelmo, 'A pilot study on the impact of a pottery workshop on the well-being of people with dementia', Sage, Dementia, Vol.19, No.6, 2020, p.2065

14) N. Morse, L. J. M. Thomson, Z. Brown, H. J. Chatterjee, 'Effects of creative museum outreach sessions on measures of confidence, sociability and well-being for mental health and addiction recovery service-users', Routledge, Arts & Health: An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Policy and

8) Business Research Insights, Craft Kits and Projects Market Size, Share, Growth, and Industry Analysis, By Type, By Application, and Regional Forecast to 2035, (2026.04.13.) www.businessresearchinsights.com/market-reports/craft-kits-and-projects-market

9) 문화체육관광부, '공예트렌드페어' 20주년, '손끝의 미학' 공예 시장 넓히다, (2025.12.30.) www.mcst.go.kr/site/s_notice/press/pressView.jsp?MenuCD=0302000000&pSeq=22150

10) 김서진, <현장스캐치> 《2024 공예트렌드페어》 일상을 빛내는 명품 만나다, 핸드메이커, (2026.01.23.) www.handmk.com/news/articleView.html?idxno=26900

양한 집단에 두루 적용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국내에서도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한 12회기 공예활동 중심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에서 자아탄력성의 유의미한 증진과 긍정적 행동 변화가 관찰되어,¹⁵⁾ 정서적 취약 계층으로 분류되는 아동, 청소년에게도 공예 기반 중재가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실증적 효과는 두 가지 이론적 기제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첫째는 촉각적 자극(Haptic Stimulation)의 차원이다. 물리적 재료를 손끝으로 만지고, 구부리고, 결합하는 행위는 직접적인 체감각 경험을 유발하며,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촉각적 자극이 부교감신경계 활성화를 통한 이완 반응을 촉진하고 정서적 안정에 기여한다고 보고한다. 요양시설에서 햅틱 디바이스를 활용한 실증 연구에서는, 촉각 감각과 디바이스의 물리적 형태가 입소자와 가족 간의 영상 통화 맥락에서 정서적, 사회적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관찰된 바 있다.¹⁶⁾ 즉 손을 사용하는 행위는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신체와 정서를 연결하는 감각적 통로로 기능한다.

둘째는 몰입(Flow) 경험의 차원이다. 칙센트미하이(Csikszentmihalyi)의 몰입 이론에 따르면, 과제의 난이도와 수행자의 기술 수준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때 개인은 시간 감각의 왜곡, 자의식의 소멸, 내재적 보상감을 특징으로 하는 최적의 심리 상태에 진입한다.¹⁷⁾ 이때 주의를 현재의 활동에 온전히 집중되며, 우울, 불안 등 부정적 사고의 반추가 일시적으로 차단된다. 조립형 공예 키트는 모듈화된 부품을 단계적으로 결합하도록 설계되어 초심자에게도 적절한 난이도-기술 균형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반복적 신체 움직임과 점진적 형태 구축의 경험은 몰입 상태를 유도하는 조건을 갖춘다.

종합하면, 수공예 활동의 치유적 효과는 국내외 다

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지지되며, 그 작동 원리는 촉각적 자극과 몰입 경험이라는 두 축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전문 치료사의 개입을 전제로 한 임상적, 집단적 맥락에서 수행되었다는 공통의 한계를 지닌다. 전문 인력의 직접적 개입 없이 참여자 스스로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기 주도형 공예 키트가 어떠한 치유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효과가 어떠한 설계 조건에서 극대화되는지에 관한 학술적 논의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학술적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2-3. 참여적 예술과 사회적 포용에 관한 논의

앞서 2-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공예 활동의 치유적 효과를 보고한 다수의 선행연구는 전문 치료사가 개입하는 임상적, 집단적 맥락 또는 박물관과 미술관 등 특정 기관 공간에서 수행되었다는 공통된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한계는 개인 차원의 효과를 넘어 누가 그 효과에 접근할 수 있는가라는 또 다른 차원의 질문, 즉 사회적 포용과 공공성의 문제로 확장된다. 본 절에서는 참여적 예술(Participatory Art)이 이러한 접근성과 포용의 문제에 어떻게 응답해 왔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본 연구가 지향하는 공공 서비스 모델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다.

참여적 예술은 관람자를 수동적 감상자에서 능동적 공동 창작자로 전환시키는 예술 실천을 지칭하며, 도시 재생, 공동체 결속, 사회적 포용 등 다양한 공공적 가치와 결합하여 논의되어 왔다. 전통적인 전시 모델이 창작자-작품-관객의 위계적 구도를 전제로 하는 반면, 참여적 예술은 관객이 제작 과정에 개입하거나 작품의 최종 형태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통해 그 위계를 해체하고자 한다. Ke(2025)는 도시 및 공동체 개발 맥락의 참여적 예술 문헌을 10년간 종합 분석한 체계적 문헌 고찰에서, 참여적 예술의 핵심 가치를 사회적 역량 강화와 민주화(social empowerment and democratisation), 다차원적 소통, 공동체 결속력 강화, 지역 문화 정체성 확립, 교육적 증진, 경제적 편익 등 여섯 가지로 도출하였다.¹⁸⁾ 동 연구는 동시에 정치적 상업적 갈등, 사회적 수용, 지속 가능성, 자원과 재원 문제 등 네 가지 도전 과제를 지적하고 있어, 참여적 예술이 단순한 미적 실천을 넘어 제도적, 사회적 기반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Practice, Vol.7, No.3, 2015, p.237

15) 김선아, 이근배, '공예활동중심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예술심리치료연구, Vol.17, No.3, 2021, p.78

16) D. Vasseur, S. Ipakchian Askari, S. Suijkerbuijk, H. H. Nap, W. IJsselstein, 'Sensory, Affective, and Social Experiences with Haptic Devices in Intramural Care Practice', MDPI, Nursing Reports, Vol.14, No.1, 2024, p.241

17) M. Csikszentmihalyi,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Harper & Row, 1990, p.7

18) Z. Ke, Op. cit. 2025, p.6

이러한 이론적 가치는 국내외의 실제 프로젝트를 통해 구체화되어 왔다. 대표적인 해외 사례인 올라퍼 엘리아슨(Olafur Eliasson)의 〈The Collectivity Project〉(2005~)는 약 2톤 분량의 흰색 레고(LEGO) 블록을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시민들이 직접 가상의 도시 경관을 구축하고 변형하도록 한 참여형 설치 작품으로, 알바니아 티라나(2005)에서 처음 발표된 이래 오슬로(2006), 코펜하겐(2008), 뉴욕 하이라인(2015), 휴스턴 미술관(2015-2016) 등에서 순회되었다.[그림 1]¹⁹⁾ 특히 뉴욕 하이라인 전시에서는 BIG, OMA, Renzo Piano Building Workshop 등 저명 건축사무소가 초기 구조물을 제작한 뒤, 시민들이 이를 자유롭게 해체 및 재조합함으로써 작품이 끊임없이 변형되는 과정 자체를 예술적 결과물로 제시하였다. 이 사례는 표준화된 모듈 부품(LEGO 블록)이 일반 시민의 능동적 창작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본 연구가 제안하는 조립형 공예 키트의 공공적 잠재력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그림 1] Olafur Eliasson, 〈The Collectivity Project〉

국내에서도 주민이 단순한 향유자가 아닌 공동 창작자로 참여하는 실천이 정책적으로 제도화되어 왔다.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주최로 시작된 〈마을미술 프로젝트〉는 지역의 사람, 역사, 문화,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장소 특정적 공공미술 사업으로, 주민을 공동 창작자, 협력자, 정보 제공자, 도슨트, 관리자 등 다양한 주체로 호명하며 참여 구조를 다층화하였다.²⁰⁾ 그 대표적 결과물인 부산 감천문화마

일은 2009년 마을미술 프로젝트로 시작된 70여 점의 예술 작품 설치와 주민협의회 중심의 공동체 사업으로 발전하여, 연간 300만 명이 방문하는 문화 명소로 자리매김하였다. 다만 이러한 정책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는 "전문가에 의해 이미 설계된 프로젝트 안에서 주민이 부분적으로 동원되는 구조"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는 참여적 예술이 표방하는 민주화의 이상과 실제 실천 사이의 간극을 보여준다.

소외계층의 예술 참여에 관한 국내 실증 연구 또한 이러한 간극을 메우기 위한 학술적 노력의 일환으로 축적되어 왔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발달장애 성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에서는, 평균 효과 크기가 1.355로 매우 큰 효과 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집단미술치료와 같은 중재 프로그램에서 가장 큰 효과 크기가 관찰되었다.²¹⁾ 또한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시민참여형 공공미술 서비스 디자인을 제안한 연구는, 정보 제공-협업-적극적 참여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 모델을 통해 접근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참여 구조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²²⁾ 이러한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즉 소외계층의 예술 참여는 일회적 향유 기회의 제공을 넘어, 참여자가 창작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매체적, 제도적 조건의 설계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참여적 예술은 사회적 포용의 유효한 실천 전략으로서 그 이론적 가치와 실증적 효과가 충분히 확인되어 왔으나, 기존 접근 방식은 특정 공간(미술관, 갤러리, 공공시설)과 전문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확장성과 일상성에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조립형 공예 키트는 모듈화된 부품을 통해 누구나 독립적 또는 공동으로 창작에 참여할 수 있는 매체적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접근성의 장벽을 낮추는 실천적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완성한 결과물을 지역 갤러리와 주민센터 및 공공문화시설 등에서 공동 전시하는 순환적 구

안내, (2026.02.26.) www.arko.or.kr

19) Olafur Eliasson, The collectivity project, (2026.01.10.) www.olafureliasson.net/artwork/the-collectivity-project-2005/

2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 공모

21) 김진희, '발달장애성인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국내 실험연구 메타분석',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교육혁신연구, Vol.31, No.1, 2021, p.2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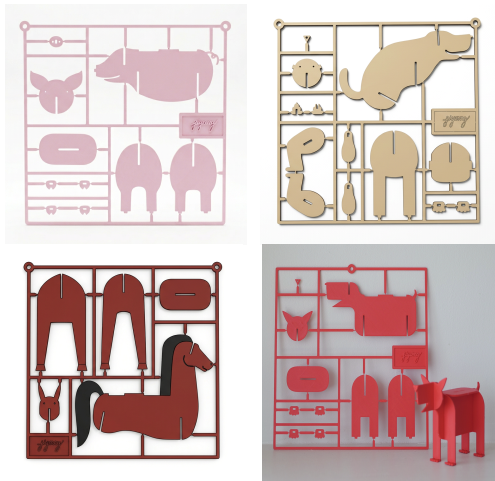
22) 정정호, 이예림, 민준기,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시민참여형 공공미술 서비스디자인', 사단법인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 브랜드디자인학연구, Vol.17, No.4, 2019, pp.266-268

조는, <The Collectivity Project>가 보여준 모듈 기반 시민 참여 모델과 <마음미술 프로젝트>가 추구한 지역 기반 공공성을 결합한 새로운 공공 서비스 모델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다층적 가치와 실천 모델은 본 논문 4장에서 개인 차원의 햅틱 자극, 관계 차원의 공동 조립, 공공 차원의 참여적 전시라는 세 층위로 구체화될 것이다.

3. 조립형 공예 키트 설계

3-1. 조립형 공예 키트의 디자인 사례

조립형 공예 키트는 정형화된 부품을 사용자가 단계적으로 결합하여 완성품을 만들어 내는 형식의 디자인 산출물로, 최근 동시대 공예·디자인 영역에서 다양한 매체와 결합 방식을 통해 그 가능성이 탐색되어 왔다. 이러한 형식은 전문 공방의 시설이나 숙련된 기능을 전제로 하지 않고도 일반 사용자가 자택에서 독립적으로 공예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부품의 모듈화를 통해 매체 선택의 자유도와 완성품의 다양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본 절에서는 본 연구가 참조 가능한 대표적 디자인 사례 세 가지를 중심으로 조립형 공예 키트의 형식적 특성과 사용자 경험적 가치를 검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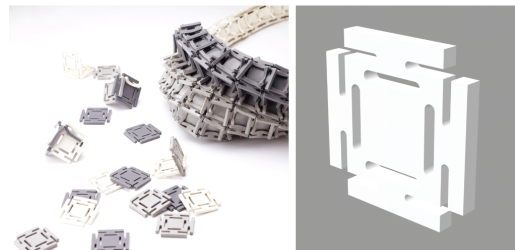


[그림 2] 안지용, DIY 동물 시리즈 키트,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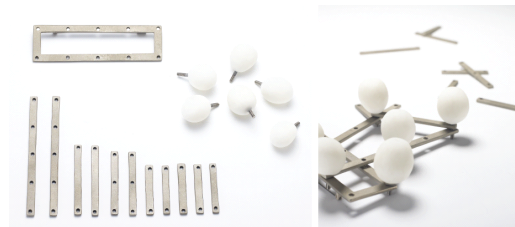
첫째, 디자이너 안지용은 3D 프린팅을 활용한 동물 형상의 조립 키트 연작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키트는

평면 패널 부품들이 격자 형태의 러너(Runner) 위에 일체로 출력되어 있고, 사용자는 러너에서 부품을 분리한 뒤 미리 설계된 슬롯에 끼워 맞추는 방식만으로 입체 동물 조형물을 완성하게 된다[그림 2]. 접착제나 별도의 도구 없이 손끝의 끼움 동작만으로 평면이 입체로 전환되는 직관적인 조립 경험은 초심자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으며, 러너의 격자 안에 부품이 시각적으로 분류 및 배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립 공정 자체가 정보 디자인의 한 형식으로 작동한다. 이는 조립형 키트가 단순히 결과물의 매체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에게 공정의 전체 그림을 한눈에 보여주는 인지적 매개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자는 선행 디자인 작업으로 <Sense of Wonder> 시리즈를 발표하였다. 본 시리즈는 동일한 단위 모듈이 반복적으로 결합되어 목걸이, 팔찌, 브로치, 오브제 등 다양한 형태로 변주될 수 있도록 설계된 개방형 조립 키트이며, 고무(Rubber), 금속, 레진(Resin) 등 서로 다른 햅틱 특성을 지닌 소재가 단일 결합 시스템 내에서 호환된다[그림 3,4,5,6]. 결합 방식은 슬롯 끼움과 볼트 결합이 병용되어 사용자에게 일정 수준의 기술적 도전을 제공하면서도, 잘못된 조립할 가능성이 낮은 구조로 설계되었다. 단일한 완성형이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고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본 작업은 조립 행위 자체를 자기표현의 매개로 확장하고자 한 시도라 할 수 있다.



[그림 3] 조완희, <Sense of Wonder #12>, 2016



[그림 4] 조완희, <Sense of Wonder #10>,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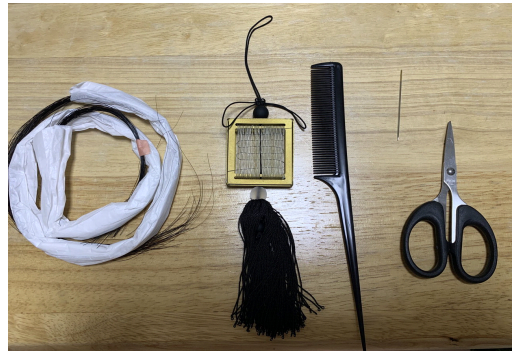
[그림 5] 조완희, <Sense of Wonder #14>, 2016



[그림 6] 조완희, <Sense of Wonder #13>, 2016

셋째, 2021년 청주공예비엔날레 <공생의 도구(Tools for Conviviality)> 전시 연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공예가 되기(Becoming a Maker)>는 14인의 공예작가가 직접 설계 및 제작에 참여하여 금속 모빌, 나무 도마, 모시 가방 등 14종의 키트를 일반 관람객에게 배포한 사례이다(그림 7). 사전 신청을 통해 키트를 수령한 참여자는 작가가 사전 녹화한 튜토리얼 영상의 안내에 따라 자택에서 직접 작품을 제작하였으며, 키트 안에는 재료뿐 아니라 바늘, 다리미용 헤라, 밀랍 등 보조 도구까지 함께 포함되어 비전문 일반인도 무리 없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본 사례는 조립형 공예 키트가 단일 작가의 디자인 산출물을 넘어, 공식 문화예술 기관과 다수의 작가가 협업하여 일반 대중에게 배포하는 공공적 형식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상의 세 사례는 매체와 결합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사용자가 자택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접근성, 결과물의 변형 또는 다형성을 허



[그림 7] 청주공예비엔날레 <공예가 되기> 프로그램 키트 중, 2021

용하는 활용성, 초심자도 시도 가능한 난이도 조절, 유형의 완성품을 통해 가시적 성취감을 부여하는 만족도라는 네 가지 가치를 공유한다. 이러한 가치는 2장에서 살펴본 수공예 활동의 치유적 기제(촉각적 자극, 몰입, 자기 효능감) 및 참여적 예술의 사회적 포용 가능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에 본 연구는 위 사례들이 보여준 형식적 가능성을 토대로 조립형 공예 키트의 지속적 개발이 필요한 영역으로 인식하고, 다음 절에서 본 연구자가 도출한 설계 원칙과 그 공공 서비스적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3-2. 지속 가능한 조립형 공예 키트 개발을 위한 설계 원칙

앞 절에서 검토한 디자인 사례는 매체와 결합 방식에서 차이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자택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형식적 가능성을 공통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이 일회적 시도나 개별 작가의 작업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사용자, 특히 소외계층의 정서 회복과 사회적 포용을 위한 매개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키트의 형식 자체에 내재된 디자인 가치를 일관된 원칙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본

절은 2장에서 살펴본 수공예 활동의 치유적 기제와 참여적 예술의 이론적 논의, 그리고 3-1절에서 검토한 디자인 사례를 종합하여, 지속 가능한 조립형 공예 키트 개발이 충족하여야 할 네 가지 설계 원칙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원칙은 새로운 결과물의 발명을 위한 기준이 아니라, 향후 다양한 매체와 주체에 의해 수행될 키트 개발이 본 연구가 지향하는 치유적, 공공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안내하는 디자인 가이드로서 기능한다.

첫째는 접근성(Accessibility)의 원칙이다. 조립형 공예 키트는 전문 공방 시설이나 숙련된 기능을 전제로 하지 않고도 누구나 자택에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진입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신체적, 인지적 장벽을 낮추는 부품 설계, 별도의 도구 구비를 요구하지 않는 결합 방식, 우편 배송이 가능한 경량의 패키징 구성 등을 포괄한다. 특히 본 연구가 지향하는 소외계층(아동,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가구 등)의 경우 도구와 재료의 자체 조달이 곤란하거나, 외부 시설 방문 자체가 부담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키트 안에 작업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포함시키는 자기 완결적(Self-contained) 구성 방식이 요청된다. 접근성은 단순히 사용 편의성을 의미하는 차원을 넘어,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포용의 디자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둘째는 활용성(Versatility)의 원칙이다. 조립형 공예 키트는 사전에 정해진 단일 완성형으로 결과를 한정하기보다, 사용자의 선택과 조합에 따라 결과물의 형태나 용도가 변주될 수 있는 개방적 구조를 지향하여야 한다. 동일한 부품 모듈이 목걸이, 팔찌, 조형물 등 서로 다른 결과로 연결되는 구성, 완성품을 다시 분해하여 새로운 형태로 재조합할 수 있는 가역성, 개인의 보관 및 전시 또는 증여 등 다양한 사용 맥락으로 확장될 수 있는 결과물의 다형성이 이에 해당한다. 결과물의 활용 폭이 넓어질수록 사용자는 키트를 수동적 매뉴얼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표현의 매체로 인식하게 되며, 이는 참여적 예술이 강조하는 능동적 공동 창작자로서의 사용자 위상 전환과 직접적으로 맞닿는다.

셋째는 난이도 가변성(Scalable Difficulty)의 원칙이다. 조립 과정은 초심자도 첫 시도에서 좌절감 없이 첫 부품을 결합할 수 있을 만큼 직관적이어야 하며, 동시에 반복적 사용을 통해 점진적으로 더 복잡한 결과물에 도전할 수 있는 단계적 깊이를 갖추어야 한다. 이는 부품의 모듈화 단위, 결합 단계의 위계, 보조 가이드의 정보 밀도 등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 칙센트미하이(Csikszentmihalyi)가 제시한 몰입(Flow) 이론에 따라

면, 과제의 난이도와 수행자의 기술 수준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때 개인은 최적의 심리 상태에 진입한다.²³⁾ 따라서 키트는 단일 사용자에게는 시간 흐름에 따른 숙련도 향상에 부응하고, 동시에 서로 다른 능력 수준의 사용자들에게는 각자의 출발점에서 의미 있는 도전을 제공하는 가변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넷째는 완성 만족도(Sense of Completion)의 원칙이다. 조립형 공예 키트의 핵심적 가치는 사용자가 자신의 손으로 유형(有形)의 결과물을 빚어냄으로써 가시적 성취감을 획득한다는 데 있다. 평면의 부품들이 입체로 전환되는 순간, 분리되어 있던 모듈이 하나의 형상으로 결합되는 순간은 사용자에게 즉각적인 인지적 보상을 제공하며, 이는 자기 효능감의 회복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키트는 결과물이 시각적으로 명료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 완결성, 일정 수준의 내구성, 보관 및 전시 가능한 마감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결과물이 단순한 시제품의 차원을 넘어 사용자의 일상 공간에 자리하거나 공공의 장에서 전시될 수 있는 수준의 마무리를 보장할 때, 완성의 경험은 일회적 만족을 넘어 지속적인 정서적 자원으로 작동하게 된다.

이상의 네 가지 원칙은 상호 독립적이지 않으며, 실제 키트 개발 과정에서는 서로 긴밀히 연동되며 작동한다. 접근성은 활용성의 기반을 이루고, 난이도 가변성은 완성 만족도의 전제 조건이 된다. 위 원칙이 어느 한 작가나 한 매체의 산물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공예가 및 디자이너, 공공 기관이 참여하는 지속적 키트 개발 활동의 공통 기준으로 작동할 때, 조립형 공예 키트는 일회적 소비재의 차원을 넘어 기초자치단체 및 공공 문화예술 기관과 연계된 지속적 서비스 자원으로 확장될 수 있다.

4. 키트의 다층적 가치와 공공 서비스 모델

4-1. 개인 차원: 햅틱 자극과 정서적 안정

조립형 공예 키트가 사용자에게 가치 있는 매개로 작동하는 가장 기초적인 층위는 한 사람이 자신의 공간에서 부품을 손에 쥐고 결합하는 일대일의 상호작용에 있다. 이러한 개인 차원의 효과는 햅틱 자극, 몰입 경험, 자기 효능감의 회복이라는 세 가지 기제를 통해 발현된다.

첫째, 조립형 공예 키트는 디지털 환경에서 결핍된

23) M. Csikszentmihalyi, Op. cit. 1990, p.4

촉각적 경험을 회복시키는 매개로 기능한다. 부품의 단단함이나 탄성, 표면의 거칠기와 매끄러움, 결합 시 손끝에 전달되는 압력의 변화는 시각적 정보로 환원되지 않는 직접적인 체감각(Somatosensory) 자극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이러한 다중 감각적 입력은 단순한 감각 경험에 그치지 않고 정서 상태의 변화로 이어지는데, 요양시설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한 햅틱 디바이스 연구에서는 물리적 온기와 부드러운 압력 감각이 참여자의 이완 상태와 정서적 안녕감을 유의미하게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²⁴⁾ 키트의 매체 운용에서 서로 다른 햅틱 특성을 지닌 소재가 단일 시스템 안에서 호환될 수 있다면, 사용자는 한 번의 조립 활동 안에서 다층적인 감각 자극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일상의 디지털 피로와 감각 빈곤을 완화하는 작은 회복의 단위로 작동할 수 있다.

둘째, 조립 행위는 몰입 경험을 유도하는 구조적 조건을 갖춘다. 모듈화된 부품을 단계적으로 결합하는 과정은 작업의 목표가 명확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이 주어지며, 난이도가 사용자의 기술 수준과 균형을 이루는 활동의 전형이다. 칙센트미하이²⁵⁾는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 개인이 시간 감각의 왜곡, 자의식의 소멸, 내재적 보상감을 경험하는 최적의 심리 상태에 진입한다고 논의하였으며,²⁵⁾ 조립형 공예 키트의 조립 과정 역시 부품의 분리, 위치 확인, 결합, 검토라는 일련의 반복적 사이클을 통해 이러한 조건을 자연스럽게 충족시킨다. 특히 결과물의 형태가 점진적으로 가시화되는 단계적 깊이의 설계는, 사용자가 자신의 진척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며 작업에 머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상의 잡념과 정서적 동요로부터 일시적으로 분리되는 경험을 제공한다. 정신건강 문제를 지닌 성인을 대상으로 한 19건의 공예 기반 중재 연구를 종합한 체계적 문헌 고찰에서도, 공예 활동 참여가 우울, 불안, 스트레스의 단기적 감소와 함께 기분 상태 및 삶의 만족도 향상에 일관되게 기여한다는 점이 보고된 바 있다.²⁶⁾

셋째, 완성된 결과물의 가시성은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의 회복을 매개한다. 분리되어 있던 평면 부품들이 사용자의 손을 거쳐 입체로 전환되고, 자신의 공간에 놓이거나 신체에 착용될 수 있는 형태의 산출물로 마무리되는 과정은, 추상적 자기 인식 차원의 변

화가 아니라 가시적, 물리적 증거를 동반한 성취 경험으로 작동한다. 임상 맥락에서도 점도 미술치료를 6주간 적용한 무작위 대조 실험은 주요우울장애 외래 환자의 우울 증상과 전반적 건강 상태 모두에서 큰 효과 크기(Large Effect Size)를 확인하였으며,²⁷⁾ 도예 워크숍에 참여한 치매 환자들에게서도 자존감과 기분 상태의 유의미한 향상이 관찰된 바 있다.²⁸⁾ 이러한 효과가 전문 치료사의 개입을 전제로 한 임상 연구에서 확인된 것이라면, 본 연구가 제안하는 키트는 동일한 매체적 속성을 비임상적 일상 공간으로 옮겨 와 사용자가 스스로 반복 가능한 형태로 재구성한 매개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정서적 위기에 노출된 소외계층에게 키트가 도달했을 때, 작은 완성품 하나가 자신의 손으로 무엇인가를 끝까지 만들어 냈다는 사실의 물리적 증거가 되어, 일상 안에 지속적으로 머무르는 정서적 자원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상의 세 기제 ‘햅틱 자극을 통한 정서적 이완, 조립 과정에서의 몰입, 가시적 완성을 통한 자기 효능감의 회복’은 사용자가 키트를 홀로 수행할 때에도 충분히 발현될 수 있는 개인 차원의 가치이다. 특별한 장소나 전문가의 개입을 전제하지 않고도 사용자가 자신의 일상 공간에서 스스로 반복할 수 있는 회복의 단위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조립형 공예 키트는 일상적 정서 자원으로서의 일차적 의미를 확보한다.

4-2. 관계 차원: 공동 조립을 통한 사회적 유대 회복

조립형 공예 키트가 단일 사용자를 넘어 둘 이상의 수행자에 의해 공유될 때, 키트는 개인의 정서 회복을 넘어 관계적 상호작용의 매개로 그 기능이 확장된다. 부품을 구분하고 순서를 맞추며 결합 결과를 함께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은 대면 소통의 자연스러운 계기를 제공하며, 공동으로 완성한 결과물은 참여자 사이의 공유된 성취감을 가시적 형태로 남긴다.

공동 조립이 관계 회복에 기여하는 첫 번째 통로는 대면 소통의 매개화이다. 일상적 대화가 서로의 눈을 마주하고 주제를 도출해야 하는 부담을 수반하는 데 반해, 공동 조립은 상호 작업 자체가 자연스러운 초점이 되어 참여자 간의 대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구조를 제공한다. 이는 특히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24) D. Vasseur, S. Ipakchian Askari, S. Suijkerbuijk, H. H. Nap, W. IJsselstein, Op. cit. 2024, p.245

25) M. Csikszentmihalyi, Op. cit. 1990, pp.7-8

26) E. B. Bukhave, J. Creek, A. K. Linstad, T. F. Frandsen, Op. cit. 2025, p.16

27) J. K. M. Nan, R. T. H. Ho, Op. cit. 2017, p.241

28) E. Pérez-Sáez, E. M. Cabrero-Montes, M. Llorente-Cano, E. González-Ingelmo, Op. cit. 2020, p.2065

소외계층에게 유효한 접근 방식이 될 수 있는데, 지역 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수행된 12회기의 공예활동 중심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의 유의미한 증진과 함께 회기 진행에 따른 긍정적 언어 및 행동 변화가 관찰되었으며, 공예 매체를 매개로 한 집단 활동이 또래 상호작용과 정서적 표현의 통로로 기능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²⁹⁾ 조립형 공예 키트는 이러한 매개적 기능을 워크숍이나 임상 프로그램에 한정하지 않고 가정, 복지시설, 돌봄 공간 등 일상적 단위로 옮겨 놓는 물리적 도구로서, 공식적 장소에 의존하지 않고도 대면 관계의 재구성능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형성된 대면적 접촉은 부품 구조 자체에 내재한 협업의 가능성과 결합되며 한층 더 깊은 상호 의존의 경험으로 이행한다. 한 사람이 특정 부품을 분리하고 다른 사람이 결합 조건을 확인하는 분업적 행위, 또는 동일 모듈을 서로 다른 참여자가 동시에 조립하며 시각적, 촉각적 조율을 맞춰가는 병렬적 행위는 공동체 안에서의 기여와 수용이라는 관계적 원체함을 점진적으로 구조화한다. 이는 참여적 예술의 핵심 가치 가운데 공동체 결속력 강화와 다차원적 소통이 강조되어 온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³⁰⁾ 특히 부품의 모듈화 단위가 적절히 설계되면, 서로 다른 연령과 능력 수준의 참여자가 함께 작업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어 세대 간, 계층 간의 경계를 넘는 교류의 계기로 작동한다.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자, 돌봄 교사와 아동, 동료 이용자끼리 키트를 공유하는 다양한 조합은, 참여자 각자가 공동 작업의 필요한 일부가 되었다는 경험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협업의 누적은 결과물이라는 물질적 형태로 응축되어 집단 정체성의 매체로 전환된다. 개인이 단독으로 완성한 산출물이 개인적 기억의 대상이라면, 공동으로 완성한 산출물은 "우리가 함께 만들었다"는 공유 서사의 물리적 증거가 되어 집단적 정서와 소속감을 강화한다. 발달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 문화예술교육 효과 메타분석에서도 집단미술치료와 같은 공동 창작 형식의 중재가 가장 큰 효과 크기를 나타냈으며, 이는 함께 만든 결과물이 개별 참여자에게 단순한 작업 산출물 이상의 의미, 즉 자기 표현, 사회적 연결, 집단 소속의 통합적 경험으로 작동함을 시사한다.³¹⁾ <마미미술 프로젝트>가 주민을 공동 창작자, 협력자, 도슨트 등 다양한 주체로 호명하며 다층적 참여

구조를 형성한 사례에서도, 결과물의 가시화는 개인의 산출을 공동체의 자산으로 전환시키는 핵심적 계기로 기능하였다. 조립형 공예 키트는 공동 작업의 결과물이 단일 완성형으로 고정되지 않고 재조합 및 재구성 가능한 구조를 지닌다는 점에서, 공동체의 경험을 제작 이후에도 시각적, 촉각적으로 재경험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대면 접촉에서 시작된 관계 회복의 작동은 협업 구조를 통한 상호 의존을 거쳐 공유된 결과물 안에 응축되면서, 조립형 공예 키트는 개인의 정서 회복을 넘어 소규모 공동체의 유대를 다시 엮는 관계적 매개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게 된다.

4-3. 공공 자원: 참여적 전시와 공공 서비스 확장

키트를 통해 산출된 결과물이 가정과 시설의 경계를 벗어나 지역사회에 공적 공간에 놓이는 순간, 사용자는 익명의 수혜자에서 가시적 창작 주체로 전환되며, 키트는 관계적 매개에서 공공적 매체로 그 위상을 확장한다. 이러한 전환은 키트가 지닌 매체적 속성을 사회적 포용을 위한 공공 서비스의 운영 단위로 재배치하는 이론적, 실천적 근거를 마련한다.

조립형 공예 키트의 공공적 잠재력은 모듈 기반 시민 참여 모델과 지역 기반 공공성 모델을 매체적으로 결합한다는 점에서 도출된다. 올라퍼 엘리아슨(Olafur Eliasson)의 <The Collectivity Project>가 보여주듯, 표준화된 모듈 부품은 별도의 전문 훈련 없이도 시민들이 도시적 경관을 함께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변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미술관과 갤러리에 한정되어 있던 창작의 권한을 광범위한 참여자에게 분배하는 매개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장소성과 공동체 정체성을 매개로 한 국내 공공미술 사업에서는 주민이 다층적 참여 주체로 자리매김하며, 결과물의 가시화가 지역 공동체의 자산으로 전환되는 구조가 형성되어 왔다. 조립형 공예 키트는 모듈 부품의 표준화 및 확장성과 지역 기반 참여의 일상성을 동시에 갖춤으로써, 두 흐름이 각각 보여준 가능성을 일상 생활권 단위로 통합할 수 있는 매체적 조건을 제공한다.

이러한 결합은 구체적인 공공 서비스 운영 모델로 구현될 때 비로소 사회적 의미를 획득한다.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시민참여형 공공미술 서비스 디자인을 제안한 선행 연구는 정보 제공, 협의, 적극적 참여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 모델이 접근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참여 구조 형성에 핵심적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조

29) 김선아, 이근매, Op. cit. 2021, p.78

30) Z. Ke, Op. cit. 2025, p.7

31) 김진희, Op. cit. 2021, p.292

립형 공예 키트의 운영에 적용하면, 첫 단계에서는 지역 복지관, 주민센터, 공공도서관 등이 키트 정보와 시연 기회를 안내하는 접점으로 기능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가정 또는 소규모 집단 단위로 키트를 조립하며 결과물을 축적하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 결과물을 지역 갤러리와 공공문화시설에서 공동 전시하는 순환적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이때 전시는 단일 작가의 완성품을 진열하는 전통적 형식이 아니라, 다수 참여자의 산출이 모듈 단위로 결합 및 재구성되어 지역 공동체의 집단 초상으로 가시화되는 형식을 취한다. 이러한 공동 전시 모델은 결과물의 노출 기회에 그치지 않고 참여자의 사회적 역량 강화와 공동체 통합에 기여하는 운영 단위로 작동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공공 서비스 확장이 지속 가능한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매체적 기능성의 차원을 넘어 제도적 기반의 차원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참여적 예술의 핵심 가치를 종합 분석한 체계적 문헌 고찰은 동시에 정치적, 상업적 갈등, 사회적 수용, 지속 가능성, 자원과 재원 문제 등 네 가지 도전 과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 이는 조립형 공예 키트를 공공 서비스로 운영할 때에도 우회할 수 없는 조건들이다. 키트의 보급과 전시 운영이 일회성 사업으로 머무르지 않으려면,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복지 예산과의 연동, 공예가, 디자이너, 복지 전문가 사이의 협업 거버넌스, 표준화된 키트 모듈의 지속적 갱신과 품질 관리 등이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과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명시한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 보장 의무를 실효적으로 이행하는 도구로서 키트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물품 배포가 아니라 사용 전, 후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포함한 서비스 운영 체계가 함께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세 층위가 하나의 매체 체계 위에서 연속될 때, 조립형 공예 키트는 개인 차원의 합력 자극과 정서적 안정, 관계 차원의 공동 조립과 사회적 유대 회복, 공공 차원의 참여적 전시와 공공 서비스 확장을 통합적으로 매개하는 도구로 자리매김한다. 일상 공간에서의 회복, 소규모 공동체의 유대, 공공 영역으로의 가시화가 동일한 부품 군 안에서 끊임 없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조립형 공예 키트는 동시대 공예가 사회적 포용을 위한 디자인 실천의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 구체적 가능성을 보여준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연결 사회에서 심화된 축적적 경험의 상실과 심리적 고립, 그리고 문화예술 접근의 비대칭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립형 공예 키트를 소외계층의 정서 회복과 사회적 포용을 매개하는 디자인 산출물로 정의하고 그 공공 서비스적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동시대 공예 DIY 키트 시장 동향, 수공예 활동의 치유적 기제, 참여적 예술의 사회적 포용 논의를 이론적 기반으로 검토하고, 세 가지 디자인 사례를 분석하여 접근성, 활용성, 난이도 가변성, 완성 만족도의 네 가지 설계 원칙을 도출한 뒤, 개인, 관계, 공공의 세 층위에서 키트가 갖는 다층적 가치와 그에 기반한 공공 서비스 운영 모델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차별적 기여는 무엇보다 공예활동 중심 미술치료의 매체적 속성을 일상 공간에서 일상 공간으로 이행시켰다는 데 있다. 기존 공예 활동 기반 중재 연구와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전문 치료사의 개입과 시설 기반 환경을 전제해 온 반면, 조립형 공예 키트는 동일한 매체적 작동 원리를 자택과 소규모 공동체의 일상 공간으로 옮겨 와 사용자가 스스로 반복 수행할 수 있는 형태로 재구성한다. 나아가 개인 차원의 정서적 회복, 관계 차원의 유대 회복, 공공 차원의 가시화라는 서로 다른 층위의 효과가 지금까지 분절된 사업으로 운영되어 왔다면, 본 연구는 이를 동일한 모듈 부품 체계 안에서 끊임 없이 연속시키는 통합적 구조로 재설계한다는 점에서 기존 논의와 구분된다.

조립형 공예 키트의 또 다른 기여는 결과물이 일회성 체험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 자원으로 재순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특정 시점 및 장소에 종속되는 비엔날레 연계 키트나 공공미술 사업과 달리, 표준화된 모듈 부품은 분해, 재조합, 증여, 전시가 가능하여 사용자 주변의 생활 궤도 안에 머무르며 반복적으로 재경험된다. 이는 소외계층을 일방적 수혜의 대상으로 호명하는 전통적 복지 구도를 넘어, 결과물의 공공 공간 가시화를 매개로 사용자를 가시적 창작 주체로 위상 전환시키는 실천적 장치로 작동한다.

이러한 구조는 현재의 복지 체계가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특히 의미를 갖는다. 거리, 이동성, 돌봄 부담,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지역 복지관이나 문화 예술 시설에 닿지 못하는 계층, 혹은 기존 프로그램의 대상 범주에서 누락되는 가구에게 조립형 공예 키트는 우편 배송 단위로 직접 도달할 수 있는 접점이 된다. 이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과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명시한 균등한 문

화예술교육 기회 보장의 의무를 공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이행할 수 있는 실효적 도구로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지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현 사회 구조에서 정서적 안녕감은 더 이상 개인의 사적 영역에 국한되는 과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공공적 자원이며, 정서 지원, 관계 지원, 문화예술 향유가 분리되어 운영되던 기존 복지 구조에서 단일 도구가 이 세 기능을 동시에 매개한다는 점은 자원 운용의 효율 측면에서도 실천적 가치를 지닌다.

다만 본 연구는 문헌 고찰과 사례 분석을 기반으로 한 이론적, 개념적 제안에 해당하며, 실제 사용자 대상의 실증적 효과 검증과 임상 및 현장 데이터 축적은 후속 과제로 남는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가 도출한 네 가지 설계 원칙에 부합하는 시범 키트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한 파일럿 운영을 통하여 정서, 관계, 사회적 참여 차원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체계를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예가, 디자이너, 복지 전문가, 행정 담당자가 함께 참여하는 협업 거버넌스 모델의 실제 운영 사례를 축적함으로써, 본 연구가 제시한 공공 서비스 모델의 실행 가능성을 정교화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결론적으로, 조립형 공예 키트는 동시대 공예가 개인의 창작 영역을 넘어 사회적 포용을 위한 디자인 실천으로 확장되는 구체적 경로를 제시한다. 손끝의 감각적 경험에서 출발한 작은 부품이 일상의 회복, 타인과의 유대, 공공 영역으로의 가시화로 이어지는 연속적 흐름을 만들 때, 공예는 순수한 미적 생산의 매체를 넘어 사회적 자원의 매체로 재정위된다. 본 연구가 이러한 재정위의 이론적, 실천적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공예 디자인, 공공 복지 영역의 교차 실천에 하나의 단초로 작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M. Csikszentmihalyi,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Harper & Row, 1990
2. 김선아, 이근매, '공예활동중심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지역사회동센터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예술심리치료연구, 2021
3. 김진희, '발달장애성인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국내 실험연구 메타분석',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교육혁신연구, 2021
4. 정정호, 이예림, 민춘기,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시민참여형 공공미술 서비스디자인', 사단법인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 브랜드디자인학연구, 2019
5. D. Vasseur, S. Ipakchian Askari, S. Suijkerbuijk, H. H. Nap, W. IJsselstein, 'Sensory, Affective, and Social Experiences with Haptic Devices in Intramural Care Practice', MDPI, Nursing Reports, 2024
6. E. B. Bukhave, J. Creek, A. K. Linstad, T. F. Frandsen, 'The effects of crafts-based interventions on mental health and well-being: A systematic review', Wiley, Australian Occupational Therapy Journal, 2025
7. E. Pérez-Sáez, E. M. Cabrero-Montes, M. Llorente-Cano, E. González-Ingelmo, 'A pilot study on the impact of a pottery workshop on the well-being of people with dementia', Sage, Dementia, 2020
8. J. K. M. Nan, R. T. H. Ho, 'Effects of clay art therapy on adults outpatients with major depressive disorder: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Elsevier,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017
9. N. Morse, L. J. M. Thomson, Z. Brown, H. J. Chatterjee, 'Effects of creative museum outreach sessions on measures of confidence, sociability and well-being for mental health and addiction recovery service-users', Routledge, Arts & Health, 2015
10. Z. Ke, 'Values and challenges of participatory art in urban and community development: a 10-year systematic review', Frontiers Media, Frontiers in Sociology,

2025.

1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문화체육관광부, 2024.10.22.
12. 장애인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2020.06.09.
13. www.arte.or.kr
14. www.businessresearchinsights.com
15. www.frontiersin.org
16. www.gamcheon.or.kr
17. www.handmk.com
18. www.kostat.go.kr
19. www.mcst.go.kr
20. www.mohw.go.kr
21. www.nia.or.kr
22. www.okcj.org
23. www.olafureliasson.net
24. www.onlinelibrary.wiley.com
25. www.publicart.or.kr
26. www.uschamber.com